

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2012. 12. 3(월)	
		작성	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장 최영수 전문관 고미정 (Tel. 044-200-1973)
2012년 12월 3일(월) 14:00부터 보도바랍니다.		배포	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(Tel. 2100-2106)

「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(KIPnet) 2차 컨퍼런스 개최
- 지식재산정책 시행 1년, 진척 현황과 향후 과제 놓고 열띤 토론 -

□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위원장 : 김형식 국무총리, 윤중용 민간위원장은) 103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산업단체들의 정책협력체인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(KIPnet)* 제2차 컨퍼런스를 12월3일 오후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.

*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(KIPnet :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) :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·기반 등 정책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정책제안 및 소통·교류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최초의 범국가적인 정책협의체('12.4.5 구성)

○ 이번 컨퍼런스에는 문화체육관광부, 교육과학기술부, 특허청 등 21개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, 150여 명의 유관기관·산업단체 및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.

□ 이 날 행사는 개회식 및 기조강연·사례발표, 주제발표 및 토론, 소통·화합의 시간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. * 세부일정 첨부참조

[세션 I : 개회식 및 기조강연·사례발표]

□ 개회사에서 윤중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“이직 미흡하고 풀어야 할 이슈가 많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**登高自卑(登高自卑)**의 마음가짐으로 한 발 씩 나아가다보면 ‘**지식재산 강국**’에 도달하게 될 것”이라고 격려했다.

□ 이번 컨퍼런스 준비를 총괄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“**국가지식재산전략 1년, 그 이상과 현실**”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,

- “범정부적 지식재산정책 시행 1년이 된 지금,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·기반 등의 각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, 아직 뿌리 깊게 해결되지 않거나 진척이 더딘 현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”고 강조하고,
- “따라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(KIPnet)는 정부와 현장 간의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한 살아있는 정책실현의 근간이자 지식재산 강국 실현의 동반자가 되어 새해에는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함께 노력하자”고 당부했다.
- 한편, 고기석 단장은, “며칠 후 열릴 올해 마지막 위원회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, 양대 특위에서 논의되어온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및 특허분쟁 해결제도 개선방안 등 그간의 결실들이 내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
□ 이어서 이지연 강원도 전략산업과장이 “지자체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사례”를 발표하였으며, 강창수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기획실장은 “개방형 특허정보서비스의 이용방법”을 공유하였다.

[세션 II :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]

□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IP-R&D, IP-보호, IP-금융 등 3가지 핵심 정책분야에 대해 주제발표와 패널*토론이 이루어졌다.

* (좌장)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, 신정혁 ETRI 지식재산경영실장, 김길해 (사)기술거래기관협의회 회장,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,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,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한상욱 김&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
① IP-R&D 관련 주제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현병환 센터장은 “가치있는 IP창출 전략으로서의 IP-R&D연계방안”에 관하여 발표하였다.

- 현 센터장은 “R&D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의 수행단계에서도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R&D지원시스템의 운영 방안으로 4P R&D지원시스템*을 제시하였다.

* 4P시스템 : 3P분석시스템(논문(Paper), 특허(Patent), 산업(Product)분석)에 포트폴리오(Portfolio) 분석을 포함하여 분석결과로부터 R&D전략 도출을 강화하는 시스템

- 이에 패널들은 “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 및 보호에 문제가 없는 가치있는 IP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자, 정보 분석 및 시장분석 전문가, 법률가 간의 ‘협력연구시스템’의 마련이 필요하다”는 데에 공감하였다.

② IP-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본부장이 “중소·중견기업의 드러나지 않는 특허분쟁 현실과 향후 과제”에 대해 발제하였다.

- 이 본부장은 “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특허분쟁이 많다”고 하면서, 대·중소기업 간 지재산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- 이에 대해 패널로 참가한 김&장 법률사무소 한상욱 변호사는 “이제 중소기업은 지재산 분쟁을 경영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분쟁에 대비해야 하며, 정부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③ IP-금융과 관련하여 김홍일 아이디어브릿지 대표는 ‘국내·외 IP금융 정책·제도 동향과 향후과제’를 발표하였다.

- 김 대표는 IP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‘금융규제’로 인한 투자유치의 어려움, ‘기초자산 무효화율’로 인한 재무적 투자자 유인력 부족, ‘IP비즈니스’가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점, ‘IP-금융 분야간 교류’가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.

- 이에 김길해 (사)기술거래기관협의회 회장은 “IP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”고 하면서 일실이익 원칙을 벗어나 징벌적 또는 가중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하였다.

[붙임] 1. 제2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(KIPnet) 컨퍼런스 개요

2.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참여기관 현황

※ 현장 사진은 추후 공보실을 통해 제공 예정